

4대강 살리기에 뺏기는 광주·전남 SOC 예산

주요사업 내년 예산 삭감 잇따라...균형개발 또 차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SOC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전체 SOC 예산의 30%를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SOC 예산 삭감은 2012 여수 엑스포,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초대형 국제 행사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SOC 국비 지원 예산 가운데 30%에 이르는 6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SOC 예산 삭감 협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광역 부단체장 회의에서 "2010년 국토해양부 SOC 국비 지원 예산 가운데 6조원 가량이 4대강 사업에 투

입될 예정이어서 내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SOC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줄줄이 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북부순환도로, 하남산단외곽도로 건설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 위기에 빠져있으며 진곡산단 진입도로, 국도 49호선 등의 예산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몇 년째 국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여수공항 확장과 무안공항~순천간 중·동부권 도로개설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의문시되고 있고, 전주~광양, 목포~광양,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와 전주~광양 간 철도 복선화 건설 등의 예산도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신규사업 예산 삭감 의지에 따라 내년도 신규 사업인 전남 동부권 순환 경전철 건설,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조사 등 29건(예산 1천900억 원)의 신규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SOC 예산 삭감은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SOC 예산 삭감은 2012 여수 엑스포,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4대강 가운데 낙동강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전체의 58%(9.8조 원)에 이르고 영산강은 15%(2.6조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SOC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SOC 인프라가 취약,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현실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 SOC 예산 삭감을 강행한다면 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서 강력한 예산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장맛비에 차오른 상수원 주암호

지난 7일 광주 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는 광역상수원인 화순군 남면 주암호의 저수율을 8일 현재 30%대까지 끌어올리는 해갈의 단비가 됐다. 아래는 지난 6월14일 댐 준공 이후 최저인 15%대까지 저수율이 곤두박질했던 주암호. >관련기사 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에 국제규격 수영장·종합체육관 만든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가 1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국제규격의 수영장·종합체육관을 각각 광산구 수완지구와 신촌동 일대에 조성, 체육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달 내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내년 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완지구 내 들어설 국제 규격의 수영장은 부지 4만㎡, 건축면적 1만2천500㎡ 규모로 440억 원이 투입되며, 수영장 10레인, 다이빙장, 관람석 4천석(가변형 2천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내년 예산으로

U대회 기반시설 수완지구·신촌동 일대에

이달내 투자심사 신청...내년 용역 착수

23억 원을 확보해 기본조사 및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일원에 들어설 어등종합체육관은 부지 5만4천㎡, 건축면적 1만800㎡의 규모로 480억 원을 들여 설립된다.

어등종합체육관에는 주경기장 및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관람석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 축구장 및 풋살경기장, 체력단련장 등 실외 경기장, 야외무대 및 주차장 등 부

대시설 등이 들어서며, 시는 내년에 예산에 20억 원을 기본조사 설계비로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전체 사업비 30%인 국비 지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기호 시 체육지원과장은 "광산구의 체육기반시설이 인구나 면적에 비해 크게 부족해 도시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접근도 등을 고려해 수

영장과 종합체육관의 부지로 선정했다"며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인하여 광주지역의 체육기반시설의 신규 설립이나 리모델링 등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청와대도 사이버테러 당했다

DDoS 공격에 국방부 등 11개 기관 접속 장애

청와대와 국방부, 네이버 등 11개 주요 기관·기업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지난 7일부터 이어져 접속장애가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3·9면)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서 이번 DDoS 공격에 사용된 '좀비 PC'도 2만2천여대에 이르는 등 기관·기업은 물론 개인 컴퓨터 이용자

들의 직·간접적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8일 대량 유해 트래픽을 수반하는 DDoS로 정부기관 등 국내 일부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거나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격은 보안이 취약한 PC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전날 오후 6시 이후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내

버의 이메일, 육선, 조선일보, 일부 은행 등 국내 주요 11개 사이트들은 서비스 접속이 아예 안 되거나 접속이 느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나 종북 세력이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진위에 따라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